

Best Paper of Next Generation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Instructor's Social Support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sic

백 고 은*

Go-eun Baek

초록 본 연구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사이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지 유형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소재 음악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및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부정 정서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수자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비교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교수자 지지, 음악전공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comparison tendency influence on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music major students. Moreover, the research verifies whether the type of instructor's social support that students perceive, regulates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tendency. The subjects were 253 music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heir social comparative tendency,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were examined. As a result first, high social comparison tendency impact negative emotion of subjective well-being. Second, instructor's support significantly effects on negative emo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nd regulates between social comparison tendency and negative emotion of 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 social comparison tendency, instructor's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college student majoring in music

* Corresponding author, E-mail: illiya86@hanmail.net

© 2019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http://dx.doi.org/10.30775/KMES.49.1.229>

I. 서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기도 하였다(Lyubomirsky, King, & Diner, 2005). 21세기에 이르러 긍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의 실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랜 기간 삶의 질, 안녕감 등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개념화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2009). 주관적 안녕감은 본인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며,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2016)에서 국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에 관해 연구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예술가들의 부정 정서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으로 이는 예술가의 행복과도 연관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음악인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은 앞으로 이들이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본고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심리적, 환경적 요인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인이므로(Im, 2015), 심리적 요인에는 사회비교경향성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수자 지지를 각각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음악 전공생 대부분은 일찍이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입시, 콩쿠르, 다양한 유형의 연주 등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타인과 비교하게 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대학 입학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예외는 없는데, 대학 내 경쟁적인 분위기는 물론이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성향을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Gibbons & Buunk, 1999), 이는 자기 강화(self-enhancement)를 돕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사회비교경향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높이고 행복을 감소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동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White, Langer, Yariv, & Welch, 200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변인으로 교수자로

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기능 향상을 도우며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요인으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Malecki & Demaray, 2002).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 정서를 약화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높여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Armstrong et al., 2005).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서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Lee, 2013; Choi & Song, 2017). 이 외에도 지지를 주는 지지원의 유형이 매우 중요한데, 부모, 동료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전공수업을 하는 '교수자'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음악 전공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업이 도제식 교육으로 이루어지 때문에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교수자는 학생의 음악성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음악학습을 의미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ichivitsa, 2007; Baek & Lee, 2018).

앞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종합해보았을 때,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 수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지가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완충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 탐색하여 음악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비교경향성

사회비교경향성(social comparison orientation)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같은 태도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Cho & Jang, 2009). 사회비교경향성에 대해 처음 언급한 Festinger(1954)는 사회비교의 원인을 스스로를 평가하기 위한 동기라고 제시하였으며,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고자 할 때 객관적 기준이 있으면 이 기준에 근거하여 자기평가를 하지만, 그 기준이 없을 때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Gibbons와 Buunk(1999)는 사회비교경향성이 개인 스스로의 특징과 수행을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하는 성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비교정도의 개인차가 다양할 수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사회비교이론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 사

회비교경향성이 환경, 현재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는 개인이 갖는 비교동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환경에 관계 없이 개인차에 의해 사회비교경향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이는 개인이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비교경향성이라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며, 비교를 경험하는 개인이 갖는 고유한 성향이라고 접근하는 관점이다(Cho & Jang, 2009; Hwang, 2005).

사회비교이론에 따른 초기 연구들은 서로 다른 비교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상향사회비교, 유사사회비교, 하향사회비교 즉, 타인의 능력 수준에 따른 유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다. 상향비교는 자신보다 비교의 대상이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비교대상이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경우는 유사비교라 일컫는다. 하향비교는 본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타인과의 비교를 의미한다(Shin & Yim, 2009). 이 같은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비교방향에 초점을 두고 이후 정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연구결과, 하향비교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를 높이고, 부정 정서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Morse & Gegen, 1970), 상향비교는 부정 정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ulik & Gump, 1997; Smith, 2000).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상향비교를 통해 부정 정서가 감소되었다는(Buunk et al., 2005) 상반된 연구결과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연구결과와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긍정 또는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연구들은 비교 대상 즉, 방향에 따라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사회비교경향성을 개인의 특성 차원으로 보고 이것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We, 2011; Hwang,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역시 사회비교경향성을 음악전공 대학생 개인이 갖는 특질 차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ener 외(2003)는 개인의 삶에 대한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인 평가로, 행복, 평화 그리고 성취와 삶의 만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은국과 구재선(Suh & Koo, 2011)은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적 요소로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라고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개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며, 장기적으로는 얼마나 유쾌한 영향을 받는지 혹은 그렇

지 않은지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된다(Diener, 1994).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부정 정서를 낮추고,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유의하게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Kim, 2017).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연구자들이 비교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주목받았다. 한덕웅과 장은영(Hahn & Jang, 2003)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 세 곳에서 대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동기, 충족수준, 강요된 사회비교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 건강 및 신체증상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학생들의 사회비교 경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려는 경향성이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황혜진(Hwang, 2005)은 대학생 154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 빈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비교를 자주 할수록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439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김경미(Kim, 2016)의 연구에서도 역시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은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낮아지고 우울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사회비교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발달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위치해있으므로, 학생들의 긍정 정서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 특히 타인과의 비교에 자주 노출되는 음악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3. 교수자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Cobb(1976)는 가장 먼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정의한 학자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사회 관계망 가운데 있다는 믿음을 주는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박지원(Park, 1985)은 사회적 지지를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지지는 애정, 관심, 존경 등을 포함하고, 정보적 지지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적 지지는 대신 일을 해주거나 돈과 같은 물질적인 제공을 의미하며, 평가적 지지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객관적 지지는 타인으로 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실제적 사회적 지지를 의미하는 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지지를 뜻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실제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이 이를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진정한 지지가 될 수 없으므로 실제적 지지보다 지각된 지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 Kim, 2014).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구인이므로, 지지원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원의 유형으로는 부모, 교사, 동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음악전공 대학생의 전공지도 교수자로 범위를 좁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전공 교수자는 다양한 음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적인 전문성을 통하여 음악학습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ichivitsa, 2007). 더불어 전공 교수자를 통해 학생들이 얻는 지지는 동기를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Baek & Lee, 2018).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혜림(Lee, 2013)은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34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에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영란과 송진영(Choi & Song, 2017)은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63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지가 사회적 안녕감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로부터 얻는 학습 및 정보적 관심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나,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음악 분야에서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분명한데 비해 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지각된 교수자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그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 음악대학 10곳에 재학 중인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전공 25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은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은 2019년 6월부터 8월 말 까지 약 두 달간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총 257명의 설문자 중 불성실한 응답자 4명을 제외한 253명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학생은 67명(26.5%), 여학생은 186명(73.5%)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55명(21.7%), 2학년 61명(24.1%), 3학년 66명(26.1%), 4학년 이상 71명(28.1%)으로 나타났다. 전공은 서양음악 116명(45.8%), 한국음악 137명(54.2%)으로 나타났고, 음악 전공 기간은 3년 미만 21명(8.3%), 3년~5년 미만 46명(18.2%), 5년~10년 미만 110명(43.5%), 10년 이상 76명(30.0%)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체적인 배경 변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Factor	Section	N	%
Gender	Male	67	26.5
	Female	186	73.5
College year	Freshman	55	21.7
	Sophomore	61	24.1
	Junior	66	26.1
	Senior or higher	71	28.1
Major	Western music	116	45.8
	Korean traditional music	137	54.2
Period of major (year)	Less than 3 years	21	8.3
	3-5 years	46	18.2
	5-10 years	110	43.5
	More than 10 years	76	30.0
Total		253	100.0

2. 측정도구

1) 사회비교 경향성

음악대학생의 사회비교 경향성 측정을 위해 Gibbons와 Bunnk(1999)가 개발한 INCOM (Iowa- 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을 연구자가 변안 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연구 목적과 맞지 않는 문항 한 개를 삭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음악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한 음악교육전문가 2인의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 결과,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0으로 확인되었다.

2) 교수자 지지

본 연구의 조절변인인 교수자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Park, 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연수(Kim, 1995)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지원의 유형을 전공 교수자로 좁혀 안내하였다. 본 척도의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적 혹은 금전적 지지를 포함하는 물질적 지지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음악교육 박사과정 2인의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70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는 .926, 평가적 지지는 .911, 정보적 지지는 .927로 나타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주관적 안녕감

음악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알아보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Suh & Koo, 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 부정 정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이나, 응답의 통일성을 위해 5점 척도로 재구성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총점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 점수를 합한 후, 부정 정서의 점수를 뺀 점수로 계산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인 결과,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76$ 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799, 긍정은 .860, 부정은 .72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등의 기술적인 통계부분을 살펴본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교수자 지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교수자 지지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사이에서 교수자 지지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모든 변인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사회비교경향성은 1~5점 범위에서 평균 3.28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은 3~1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만족은 평균 10.42, 긍정은 평균 10.34, 부정은 평균 9.37로 나타났다. 교수자 지지는 1~5점 범위에서 정서적 지지는 평균 3.62, 평가적 지지는 평균 3.78, 정보적 지지는 평균 3.81로 나타났다.

자료의 정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절대값이 모두

2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는 정규분포에 근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진행하는데 자료의 분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Sub-factor	Range	M	SD	W	K
Social comparison tendency		1-5	3.28	0.77	-0.26	0.06
Subjective well-being	Satisfied	3-15	10.42	2.43	-0.40	-0.01
	Positive	3-15	10.34	2.66	-0.39	0.12
	Negative	3-15	9.37	2.42	0.10	-0.39
Instructor's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1-5	3.62	0.83	-0.67	0.83
	Evaluation support	1-5	3.78	0.79	-0.87	1.39
	Information support	1-5	3.81	0.81	-0.78	1.18

2)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 상관관계 확인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만족과 긍정 요소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반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172$, $p<.01$). 그리고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주관적 안녕감과 교수자 지지 간 상관관계 검증 결과, 주관적 안녕감의 만족, 긍정 요소는 교수자 지지의 모든 요인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는 교수자 지지의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s	1	2	3	4	5	6
1. Social comparison tendency	1					
2. Subjective well-being (satisfied)	-.082	1				
3. Subjective well-being (positive)	-.085	.658***	1			

Variables	1	2	3	4	5	6
4. Subjective well-being (negative)	.172**	-.460***	-.551***	1		
5. Emotional support	-.115	.260***	.219***	-.190**	1	
6. Evaluation support	-.095	.262***	.247***	-.150*	.891***	1
7. Information support	-.050	.285***	.215***	-.103	.893***	.888***

* $p < .05$, ** $p < .01$, *** $p < .001$

3. 변인 간 영향 관계 분석

앞서 상관관계 확인 결과, 사회비교경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부정 정서하고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중 부정 정서에 초점을 두어 사회비교경향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교수적 지지가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2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 교수자 지지,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 간 상호작용항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은 평균중심화를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1)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 간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 = .172$, $p < .01$). 즉 사회비교경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인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정서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 = -.173$, $p < .01$). 즉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인 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정서적 지지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4%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은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즉 정서적 지지는 조절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 부정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지지가 낮춰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ative tendency and subjective well-being(negative)

Stag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p)	R ² (adjR ²)	ΔR^2
1	(C)	9.373		62.386** *	7.643 (<.01)	.030 (.026)	-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41	.172	2.765**			
2	(C)	9.369		63.200** *	7.838 (<.001)	.059 (.051)	.029* *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79	.152	2.462*			
	Emotional support	-0.505	-.173	-2.798**			
3	(C)	9.334		63.375** *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81	.153	2.499*	7.504 (<.001)	.083 (.072)	.024*
	Emotional support	-0.519	-.178	-2.906**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80	-.155	-2.547*			
	*Emotional support						

* $p < .05$, ** $p < .01$, *** $p < .001$

2) 평가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 간 관계에서 평가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는 앞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172$, $p < .01$).

2단계에서 평가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 = -.135$, $p < .05$). 평가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과 평가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2.3%만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상호작용항 역시 유의하였다. 평가적 지지가 두 변인 간 사이에서 조절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적 지지가 낮춰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evaluation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ative tendency and subjective well-being(negative)

Stage	Independent variables	B	β	t	F (p)	R ² (adjR ²)	ΔR^2
1	(C)	9.373		62.386***		.030	-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41	.172	2.765**	(<.01)	(.026)	
2	(C)	9.372		62.842***		.048	.018*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01	.159	2.565*	(<.01)	(.040)	
	Evaluation support	-0.416	-.135	-2.178*			
3	(C)	9.344		63.105***		.070	.023*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94	.157	2.554*		(.059)	
	Evaluation support	-0.416	-.135	-2.200*	6.268 (<.001)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480	-.150	-2.460			

* $p<.05$, ** $p<.01$, *** $p<.001$

3) 정보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 사이에서 정보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단계에서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172$, $p<.01$).

2단계에서는 정보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정보적 지지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0%만큼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증가는 아니었고, 상호작용항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정보적 지지는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 사이에서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 of information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arative tendency and subjective well-being(negative)

Stag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F (p)	R ² (adjR ²)	ΔR^2
1	(C)	9.373		62.386***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41	.172	2.765**	7.643 (<.01)	.030 (.026)	-
2	(C)	9.371		62.535***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26	.167	2.693**	5.008 (<.01)	.039 (.031)	.009
	Information support	-0.284	-.095	-1.528			
3	(C)	9.361		62.632***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506	.161	2.590*			
	Information support	-0.287	-.096	-1.546	4.265 (<.01)	.049 (.037)	.010
	Social comparative tendency	-0.316	-.102	-1.647			
	*Information support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전공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지가 조절적인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서양음악과 한국음악 전공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253명을 대상으로 사회비교경향성, 주관적 안녕감, 교수자 지지를 측정도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를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적인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비교경향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높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던 황혜진(Hwang, 2005)과 김경미(Kim, 201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찍부터 콩쿠르, 공개상황에서의 연주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

존감, 동기와의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부정적인 성향에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삶의 질, 나아가서는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타인과의 비교보다는 스스로의 음악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사회비교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자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요소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더불어, 사회비교경향성과 교수자 지지의 하위요인 간의 상호작용향을 각각 투입하여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 간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의 부정 정서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교수자(전공 교수 혹은 강사)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의미한 타인으로 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들(Lee, 2013; Choi & Song, 2017)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수자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학생들이 교수자로부터 애정, 존중,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 부정적인 성향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수자로부터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을 때 역시 부정 정서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수자로부터 얻는 정보적 지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는데 정서적인 지지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정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전공 수업에서 학생과 교수자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피드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 개인이 얼마나 타인과 비교하는지 등의 성향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을 통해 학생의 음악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수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표집 대상의 범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연주전공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지역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rmstrong, M. I., Birnie-Lefcovitch, S., & Ungar, M. T. (2005). Pathways between social support, family well being, quality of parenting, and child resilience: What we kno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2), 269-281.
- Baek, G. E., & Lee, J. Y.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in the 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music.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21-45.
- Baek, G. E., & Lee, S. Y. (2018). Perfectionism and music performance anxiety: Understanding the function of social support in lessening the impact of performance pressur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and Talented*, 17(3), 29-52.
- Buunk, B. P., Kuyper, H., & van der Zee, Y. G. (2005). Affective response to social comparison in the classroom.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7(3), 229-237.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metric Medicine*, 38, 300-314.
- Collins, R. L. (1996). For better or worse: The impact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elf-evalu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9(1), 51-69.
- Cho, G. P., & Jang, E. Y. (2009).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attribution styles by their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5(2), 57-78.
- Choi, Y. R., & Song, J. Y. (201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high-school adolescent's well-being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3(5), 319-346.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403-42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itz, B. S., & Avsec, A. (2007). The experience of flow and subjective well-being of music students. *Horizons of psychology*, 16(2), 5-17.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Hahn, D. W., & Jang, E. Y. (200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n anger experience, subjective well-being, and health percep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1), 85-112.
- Hwang, H. J. (2005). *Social comparison frequ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Im, W. G. (2015). Influencing factors to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3(3), 119-126.
- Kim, K. M. (2016).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self contr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0), 235-257.
- Kim, S.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liste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Music Education*, 10, 63-82.
- Kim, S. Y., & Kim, J. S. (2014). The influence of family risks and emotion regulation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Testing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3), 1257-1276.
- Kim, Y. S. (1995).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Master thesis, Ewha University.
-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2016). *Presentation of artist psychological counseling research results*. Seoul: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 Kulik, J. A., & Gump, B. B. (1997). Affective reactions to social comparison: The effects of relative performance and related attributes information about another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5), 452-468.
- Lee, H. L. (2013).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character and well-being in adolescents*. Master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
- Malecki, C. K., & Demaray, M. K. (2002).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CASS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1), 1-18.
- McComick, J., & McPherson, G. (2003). The role of self-efficacy in a musical performance examination: An exploratory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Psychology of Music*, 31(1), 37-51.
- Morse, S., & Gegen, K. J. (1970). Social comparisons, self-consistency, and the concept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8-156.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Shin, J. H., & Yim, S. Y. (2009). The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f task performance and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4), 753-768.
- Schneider, E. (2011). Social support and performance anxiety of college music students.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 26(3), 157-163.
- Sichivitsa, V. O. (2007). The influences of parents, teachers, peers and other factors on students' motivation in music.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29(1), 55-68.
- Smith, R. H. (2000). Assimilative and contrastive emotional reactions to upward and downward social comparisons. In J. Suls, L. Wheller (Eds.). *Handbook of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research* (pp. 173-200). Iowa: Springer
- Suh, E. K., & Koo, J. S.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5-113.
- We, S. H. (2011).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attribution of social comparison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emotional state*.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 White, J. B., Langer, E. J., Yariv, L., & Welch, J. C. (2006). Frequent social comparisons and destructive emotions and behaviors: The dark side of social comparison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1), 36-44.

- Wood, J., Taylor, S., & Lichtman, R. (1985). Social comparison in adjustment to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5), 1169-1183.
- Yoon, B. N., & Han, J. H.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bility beliefs and achievement goals among music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3), 59-83.

Received: 30 November 2019, Reviewed (Revised): 3 February (4 February) 2020

Accepted: 4 February 2020, Published: 29 February 2020

Go-eun Baek: E-mail: illiya86@hanmail.net

Student Researcher(Doctoral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